D-2

조선시대의 상징적 재난예방의식에 관한 연구

조선호
서울마포소방서

A study on the symbolic disaster prevention awareness of the Choseon dynasty

Seon Ho Cho
Seoul Mapo Fire Station

요 약

우리나라는 재난예방에 고나한 의식 분야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자랑할 만한 유·무형의 상징적 문화유산과 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발굴과 계승 측면에서 책무를 지고 있는 소방의 관심 소홀로 인해서 대중적인 것을 물론이고 소방 내부적으로도 생소하기까지 하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으며, 조상들이 남겨 놓은 재난예방에 관한 상징적 유산들을 고찰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Keywords : 재난예방의식, 상징물, 조선시대, 문화유산

1. 서 론

신화, 전설, 설화, 민담 등은 인류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만일 이러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문화적 빈곤 문제를 떠나서 문화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오랫동안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온 풍부한 이야기는 그 문화의 가치와 관심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인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 계승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정체성 뿐 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는 스토리텔링의 시대인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소방도 교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왔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대 소방은 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은 물론이고 상당부분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의미 있는 소방의 이야기를 누리는 것에 대상의 제한이 없지만 누구보다도 그것을 계승하고 알리는 것은 1차적으로 소방인 들의 책무일 것이다.

본고는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유·무형의 상징적 문화유산들을 발굴하기 위해 조선시대 이후 각종 문헌과 선행연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유·무형의 유산들이 담고 있는 소방문화사적인 의의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조선시대의 상징적 재난예방 의식

2.1 한양도성의 비보풍수 시설

비보풍수(裨補風水)는 풍수학적 관점에서 자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선왕조는 한양도성의 화재안전 측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보시설을 만들었다.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숭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쓰고 숭례문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도로를 우회시켰으며 광화문 앞에는 방화신수인 해태상을 세웠다. 그리고 물이 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인공연못을 설치하였는데 숭례문 앞의 남지(南池)가 대표적이다.

2.2 극화마(克火魔) 조형물

우리 조상들은 화마가 있어 불이 난다는 의식이 있었다. 따라서 화마를 이기기 위한 시설물을 만들어 설치했다. 대표적인 것이 불을 이긴다는 상징적인 동물을 이용한 것으로 그 종류와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였다. 광화문 해태, 궁궐 내 불가사리 석상, 기와 지붕위의 치미, 경회루의 청동오조룡(靑銅五爪龍), 숭례문 남지의 청동용두거북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궁궐 내에 설치된 드므도 화마를 물리치기 위한 방화예기였다.

2.3 문자와 그림

문자와 그림을 이용한 것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팔괘와 수(水)자를 이용한 그림(청동용두거북 함 내부), 수(水)자로 큰 용(龍)자를 쓰는 만용도(萬龍圖), 상량문의 앞 뒤에 쓰는 용(龍)자와 귀(龜)자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경복궁 근정전에서 발견된 물수 자를 새긴 육간 은판도 있다. 그리고 해태나 개 등의 그림으로 만든 세화(歲畵), 주로 부적으로 사용되는 삼두일족응(三頭一足鷹)도 대표적인 재난막이 상징물이다.

2.4 액막이 민속행위 등 무형 의식

화재를 비롯한 재난은 민간에서도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조형물을 만들거나 그림과 같은 것을 얻기 어려웠던 서민들은 주로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무형적인 민속행위를 행하였다. 지붕에 막걸리나 쌀뜨물, 간수 등을 뿌리는 의식이나 물수(水)자를 종이에 써서 집안 곳곳에 거꾸로 붙여 물이 쏟아지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왕릉이나 사찰 등에서 화재가 나면 혼백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다.

3. 정책제언 및 결론

본 연구에 의하면 우리 조상들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징물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재난에 대해 보다 겸손하고 이를 경계하며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조상들이 현대인들에게 남겨 준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오늘날의 소방이 보존하고 계승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향후 소방박물관 설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테마가 될 상징적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 소방행정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유형과 무형의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하는 정책적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범위도 시대적・공간적으로 확대하여 외국과의 비교연구나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가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를 넘어서 현대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방 스토리들을 잘 기록하고 보존해서 스토리가 풍부한 소방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